

## PA-071

**향미 ‘십리향’의 파종량별 육묘 장소 및 일수에 따른 모소질 변화**강영호<sup>1\*</sup>, 이덕렬<sup>1</sup>, 양진호<sup>1</sup>, 조대호<sup>1</sup>, 김희준<sup>1</sup>Yeong Ho Kang<sup>1\*</sup>, Deok Ryeol Lee<sup>1</sup>, Jin Ho Yang<sup>1</sup>, Dae Ho Jo<sup>1</sup>, Hee Jun Kim<sup>1</sup><sup>1</sup>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413,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작물식품과<sup>1</sup>Jeollabukdo Agricultural Research Extension Services, Iksan, 54591, Korea.**[서론]**

최근 전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향미인 ‘십리향’은 일반미와 같은 밥쌀용 쌀이며 현재 전북지역에서 재배면적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십리향’의 안정적 재배를 위하여 맞춤형 육묘기술을 개발하여 영농현장에 보급하고자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품종은 2019년도에 육성된 십리향과 대조품종으로 신동진을 선정하여 5월 21일에 파종하였다. 상자당 파종량은 종자 크기에 따라 십리향은 210g, 300g, 신동진은 220g, 330g이었다. 육묘는 실외와 온실에서 각각 8일, 10일, 12일, 14일간 하였으며, 모소질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초장, 모층실도 및 매트장력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파종량별 육묘 장소 및 일수에 따른 모소질 변화를 분석한 결과, 육묘 장소와 관계없이 십리향 및 신동진 모두 파종량 증가 시 초장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안정적으로 이앙할 수 있는 10cm 이상의 초장을 확보하기 위한 육묘 일수는 실외에서 신동진은 12일, 십리향은 14일이 소요되었으며, 온실에서는 두 품종 모두 10일이 소요되었다. 모층실도(mg/cm)는 파종량이 적을수록 높았으며 실외에서는 두 품종 모두 14일까지 모층실도가 감소하지 않았으나, 온실에서는 생육 온도가 높아 십리향은 14일, 신동진은 10일부터 모층실도가 4~10%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매트장력(g/cm<sup>2</sup>)은 실외가 온실에 비하여 높았고, 파종량이 많을수록, 육묘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았다. 품종별로는 신동진이 십리향에 비하여 실외, 온실 모두 매트장력이 높았다. 본 시험 결과 ‘십리향’의 안전재배를 위하여 초장, 모층실도, 매트장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외에서는 최소 14일 이상, 온실은 파종량 210g은 14일, 300g은 12일 이상의 적정 육묘 일수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자체 개발 벼 품종 현장적용 기술연구’ 사업(사업번호: LP004248)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주저자: Tel. +82-63-290-6073, E-mail. dudgh0414@korea.kr